

곡성, 모두의 광장 '비빌언덕25' 준공식 개최

청년·귀농·마을공동체·일자리 활동 등 다양한 공간 마련

곡성지역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공간인 '비빌언덕 25'가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곡성군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간인 '비빌언덕25'가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빌언덕25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과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795㎡ 규모로 준공됐으며 주민들이 소통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교육장을 비롯해 스튜디오, 여행자가 쉽다, 공유 오피스 등의 공간이 마련됐다.



또 비빌언덕25에는 청년센터, 귀농 귀촌지원센터, 마을공동체센터, 일하잡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 중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센터는 청년문화를 활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유로운 토론과 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청년 활동의 거점이 될 공유 오피스 등으로 구성했으며 청년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될 여행자가 쉽다도 운영된다.

또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전담매니저가 구성돼 청년들의 소통·창업·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심리치료, 크리에이터 교육, 재테크 관련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청년센터활동을 시작으로 귀농귀촌·마을공동체·일하잡 센터들은 공간을 공유하며 지역 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비빌언덕25가 다양한 공동체가 협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황상연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CEO' 수상

새로운 도시 표준 창조하는 생태도시 전략 인정받아

노관규 순천시장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한 '2022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되어 21일 선정패를 받았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방자치행정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에게 수상하는 영향력 있는 상이다.

전국 226개 지자체로부터 부문별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전문가, 공무원, 지역정책연구 포럼회원 등 1400여 명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4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고, 노관규 시장은 전국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 시장 48명 중 최고의 지자체장으로 선정됐다. 노 시장은 14년 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이것이 국내 첫 국제정원박람회 개최(2013)로 이어졌으며, 세계 최초 흑두루미를 위해 전복대 282개를 뽑아 순천만을 1만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찾는 글로벌 생태 관광지로 만든 것이 높이 평가됐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5대 분야 39개 세부사업 추진

광양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강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광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광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역량 강화+청년 네트워크 구축+행정 지원'을 통해, 청년이 꿈을 펼치는 청년친화도시 광양을 정책목표이자 비전으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참여·관리,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등 5개 분야의 '청년 친화적 정책 발굴 및 청년교류 활성화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 자립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사업 지원', '역량 있는 청년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정했다.

5대 추진과제에는 5개 분야 39개 세부사업이 있고 신규사업 10개, 공약사업 9개가 포함돼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청년인구 비율이 26.4%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청년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청년이 꿈을 펼치는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추진 우수사례

해남군, 행안부장관상 수상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모전은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공유하고 사회적경제 추진 역할을 제고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모든 사회적 경제주체가 함께 한 2022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사례발표를 통해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군 공모로 진행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어 코로나 이후 3년만에 대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지난 11월 7일 해남군민광장 일원에서 열린 한마당 행사에는 22개 시군 기업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의 성장세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한 첫 행사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기업제품 공공구매 등 판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내년도에도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등 기업인과 군민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화순, 지역발전지수 전남 군 단위 1위

전국 159개 시·군 발전지수 평가... 생활서비스 부문 전국 최고 기록

화순군의 지역발전 우수성이 전국 시·군 대상 비교평가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

화순군은 동아일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지역발전지수(RDI) 평가에서 전남 군 단위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평가한 이번 결과는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의 발전지수를 측정해 발표했다.

순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개발한 지역발전지표를 기초로 ▲생활 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 활력 등 4개 부문을 심사, 결정됐다.

화순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3회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부적으로 생활서비스 부문에서 6위, 삶의 여유 공간 부문에서 11위를 차지하며 '웰빙'과 '힐링' 콘텐츠에서 강세를 보였다.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생활서비스 부문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도입한 '마을주치의 제도'의 흥행 덕분에 평가받았다.

마을주치의는 화순군 보건소, 12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의 공중보건 의사의 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력이 13개 읍·면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진료소에 따라 치매 예방프로그램, 심뇌혈관 예방프로그램, 원예·미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정기적인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일상 활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12월 중순까지 총 393회를 운영, 5763명의 지역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다.

구북구 군수가 농촌지역의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증가, 의료 환경의 열악 등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심해서 내 놓은 대책이 빛을 보았다. '만안산 치유의 숲'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콘텐츠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평가됐다. /화순=주용현 기자

구례군의회, 내년 예산 28억 6890만원 삭감

20일 37건 의결... 30일간 열린 정례회 마무리

구례군의회의(의장 유시문)는 20일 제295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구례군의회는 지난달 21일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30일간의 일정으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안 확정 등 37건을 의결했다.

앞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원이 증액된 3402억 5500만원 중 총 13건에 대한 28억 6890만원을 삭감했다.

20일에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장길선 의원 등 의원 3명은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 지속가능한 공공스포츠 클럽 육성,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을 이유로 예결위가 삭감한 일부 예산을 편성하지는 취지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일부 예산을 되살렸다.

유시문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협조 감사하다"면서 새해에도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폭넓은 안목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의정을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 견학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위한 방안 모색

순천시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1박 2일간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지역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현장 견학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순천시 관내에는 순천생태체험휴양마을(승주읍 도정리), 개령이농촌체험휴양마을(별량면 대동리), 꽃마차농촌체험휴양마을(낙안면 금전리), 순천만장뽕어농어촌체험휴양마을(별량면), 한메실농촌체험휴양마을(월등면 계월리), 용오름(주암면 운룡리), 안산골농촌체험휴양마을(서면 비월리), 순천농촌체험휴양마을(승주읍 구강리) 등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견학은 지난 19일~20일 1박 2일 간 8개마을 운영위원장과 위원, 사무장, 순천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첫날에는 전북 무안군 안성면에 자리한 솔다박농촌체험휴양마을을 견학하고 사무장으로부터 '마을소개 및 사례발표', 운영프로그램인 '블루베리 콤포트' 체험을 하고 '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 등을 통해 8개 마을 운영 현황과 개선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우수마을 운영의 장점을 살펴 각 마을

에 맞게 적용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동향을 이끌어 내 휴양마을 발전시킴으로 의견을 모았다.

둘째날에는 우수 지역자원 특화 개발지역인 경남 산청군 소재 등의보감촌 현장 견학과 야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우수마을 견학과 체험을 토대로 순천시 8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운영 내실화와 농촌 활력 증진과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도시민 유치 확대 및 농외소득 향상 방안을 강구했다.

앞서 순천 꽃마차농촌체험휴양마을은 최근 '202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 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개령이마을은 고들빼기를 통한 체험,음식 개발, 숙박 등 통해, 순천만장뽕어마을에서는 낚시 체험 등과 장뽕어빵을 개발해 상품화에 성공 판매까지 하고 있다.

반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관 등 시설 등이 가장 열악한 순천농촌마을은 대폭적인 지원으로 활로를 찾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순천=조순의 기자

영광, 임업직불금 지급 28농가에 3200만 원

영광군은 2022년 임업직불금 3200만 원을 확정하고 12월 21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8명으로 34ha면적이 해당된다.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28명으로 3천 2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되고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 산지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만 해당된다. 또한 임산물을 전·답에 식재하여 실제 경영을 하더라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제외된다. /영광=서종민 기자

목포, 내년 1월 9일 근대역상 패션쇼 연다

시, 패션브랜드 슬링스톤과 업무협약 체결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근대역상 패션쇼를 연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목포시청에서 패션브랜드 슬링스톤(대표 박종철)과 '목포 근대역사문화 홍보를 위한 근대역상 패션쇼 및 패션영상물 제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국내 최고 패션업체와 젊은 세대 감각을 공략하는 트렌디한 홍보 마케팅을 펼쳐 목포의 근대역사문화 자원을 세련된 방식으로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슬링스톤은 패션쇼의 의상·출연모델·연출·촬영 등을 담당하고, 패션 영상물을 제작해 목포시에 제공하며 미디어 매체에 적

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수행한다.

시는 슬링스톤의 패션쇼 및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배경으로 한 영상물 촬영시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목포에서 근대역상 패션쇼를 개최하는 배경에는 목포의 자원이 밀바탕이었다.

목포는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고로 흑백TV를 보는 듯한 느낌의 복고와 현대를 동시에 즐기는 융복합형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슬링스톤 대표인 박종철 디자이너는 이와 같은 매력을 가진 목포를 근대역상 패션쇼의 최적지로 판단했다.

패션쇼는 내년 1월 9일 오후 5시 30분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모델 26명이 출연하는 가운데 열린다. /목포=김근호 기자

무안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업무협약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농수산물품 수출 활성화

무안군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농수산물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캠페인 '그린푸드 데이' 추진 등 ESG가치 실천 ▲농수산물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유통 및 수출 촉진,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협력 ▲기후 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촉진을 위한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친환경 메뉴 개발과 제공으로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농수산물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박태연 기자

신안 '통합 메타버스 구축' 업무협약

신안군은 지난 20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신안군 공무원, 신안군의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매일경제신문에그테크혁신센터, KDX 한 국내 테크 기업, MAMTECH(주)와 함께 '신안군 통합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메타버스 타고가는 신안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메타버스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 모습을 통해 신안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04개의 섬과 1도 1무지음, 1섬 1정원, 친환경 농수산물 등 신안군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상현실(Extended Reality)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4개 기관은 △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교환 △인적 자원의 교류 및 교육 △공동사업 발굴 △공동행



사 개최 △공동사업 등에 대한 홍보 △국내외의 자료조사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공동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용해 그동안 신안군의 역사와 변화되어 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인이 찾는 새로운 신안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은 2023년 1도 1무지음, 정원, 해양관광 등 참여형 콘텐츠개발을 위한 준비를 확보해 신안 1004메타버스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안=박태연 기자